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텔레비전과 인터넷 관련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주재원 · 나보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 매체의 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미디어 장 내에서는 제한된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 상호간의 권력관계, 특히 담론생산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올드미디어로서의 신문이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시대별 뉴미디어와 관련해 생산하는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문은 뉴미디어에 대해 교육적·공익적 역할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보도방식은 사실 보다는 가설에 기반하는 양상을 보였다. 텔레비전에 대한 담론의 경우 전반적으로 '저속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결여된' 매체로 재현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대해서는 도입기에 긍정적 담론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성숙기로 갈수록 '선정적'이면서 '중독성'이 강하고 '병리적 치료가 필요한' 매체로 재현되고 있었다. 둘째, 신문은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타 국가와의 경쟁도구'로 담론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뉴미디어 관련기술과 문화에 대한 이중적 보도양상을 나타냈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 뉴미디어가 선진국의 앞선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뉴미디어로 인해 파생되는 외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거나,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을 지라도 대안 미디어로서의 기능에 관한 담론은 축소되어 있었다. 셋째, 신문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부모)의 관심과 대화와 '인쇄매체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신문매체가 뉴미디어를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전유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비윤리적이고 수준 낮은 미디어로 재현하는 것에 반해 신문 스스로에 대해서는 매우 '엘리트적'이며 사회를 선도하는 '정통성' 있는 미디어라는 담론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올드미디어로서의 신문이 이항대립적 위치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타 미디어를 특정하게 담론화함으로써 미디어 장에서의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론생산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국문 키워드 : 올드미디어, 뉴미디어, 재현, 담론, 뉴스 프레임, 미디어 권력

영문 키워드 : old media, new media, representation, discourse, news frame, media power

*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발전적 제언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1. 문제 제기

미디어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꾸어 왔다. 대량 인쇄술이 발달된 산업혁명 이후,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부의 신문이 생산되었으며,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대중적 미디어로서의 신문은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텔레비전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신문은 올드미디어로 밀려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 78%에 달했던 신문 구독률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60% 이하로 감소했다(Dizard, 2000).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프라임 타임 시청률의 90%를 세 개의 주요 지상파 채널인 NBC, ABC, CBS가 분할하는 형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케이블 채널의 상승세 속에 결국 1998년 처음으로 프라임타임(*prime-time*)대 시청자의 과반수를 케이블 채널이 차지하게 되었다.¹⁾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미디어 산업의 화두는 인터넷으로 집중되었으며, ‘정보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들은 ‘융합이냐 대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매체가 기존의 매체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라디오의 등장은 신문의 향방에 의문을 남겼고,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는 라디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다(강미은, 2000).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드미디어로서의 신문은 여전히 사회적 담론 생산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뉴미디어의 등장에 대한 갖가지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때로는 뉴미디어와의 융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고유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올드미디어와 새로운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뉴미디어 간의 권력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드미디어는 담론생산의 주도적 위치를 이용하여 뉴미디어를 특정한 형태로 프레임화하고자 하며, 미

1) “Corporate Menace to Society”, *Washington Post*, 27 May 1998, p.A-17.

디어 수용자들은 뉴미디어의 초기 단계에서 올드미디어가 재현하는 담론을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Briggs and Burke, 2005).

따라서 올드미디어가 생산하는 뉴미디어 관련 담론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 간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신문이라는 올드미디어가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상대적 뉴미디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생산되는 사회적 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관계

퍼거슨과 퍼스(Ferguson & Perse, 2000)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미디어의 대체효과(*displaced effect*)와 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미디어가 기존의 올드미디어에 대한 대체재나 보완재냐 하는 논의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까지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직접적 권력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적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미디어의 역사적인 변천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간 충돌 현상, 그리고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를 대하는 수용자들의 변화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었다(Chun & Keenan, 2006; Dizard, 2000; Jenkins, 2006).

국내에서는 김관규와 김무곤(2005)의 연구를 통해 인터넷 신문과 인쇄 신문이 수용자의 뉴스 선택 기준, 정보 인지, 의제설정 효과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인터넷 신문과 인쇄 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뉴미디어

어 형식의 인터넷 신문을 접하는 수용자들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집중도가 분산되어 인쇄 신문에 비해 효과적인 미디어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재민 외 2인(2005)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의 행태를 통해 미디어간의 경쟁과 보완관계를 분석했는데, 이 연구의 핵심적 전제는 한 사회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그 미디어가 가지는 기술적 장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필요가 결합된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가 수용자들에게 정보나 오락, 충족기회 차원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과 대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러한 경쟁과 대체 관계로 인해 기존의 올드미디어는 끊임없이 뉴미디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강미은(2000)은 인터넷 사용과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의 수용 정도 사이의 관계를 미디어 대체이론, 이용과 충족이론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가 신문이나 방송 등과 같은 올드미디어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수용자의 입장에서 매체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인터넷 사용과 신문 열독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인터넷 사용과 텔레비전 시청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까지 언급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계량화하였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낸 논문들로서 미디어의 충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디어 담론이나 미디어 생산자들 간의 권력관계 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는 상호 경쟁과 보완을 반복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올드미디어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왔다(Chun & Keenan, 2006). 근대 신문의 태생지인 유럽에서 신문이 타 매체를 비판해 온 역사는 대중적 일간지의 초창기 시절인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문 기

사의 주 비판 대상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던 소설이었다. 1800년대는 영국을 중심으로 대중적 소설이 등장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소설들의 주요 소재는 폭력, 섹스, 공포 등 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우 선정적인 것이었다(Dewsbury, 1999). 특히, 1800년대 후반의 영국 일간지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 중 선정적인 소설을 흉내 낸 모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기사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 '소설 비평란'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190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신문이 더욱 선정적인 내용의 소설을 연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새로운 매체인 라디오와 TV가 등장하면서 신문의 비판은 TV로 집중되었다(Jenkins, 2006).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인쇄 매체', '엘리트적 매체', '상위 문화'라는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소설에 대한 비판 강도를 낮추기 시작하였고, 대부분 서적에 대한 비평들로 채워지던 신문 지면은 서서히 '북 리뷰'와 '새로운 책 소개'와 같은 광고성 기사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올드미디어의 행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은 오늘날 미디어의 담론 생산 연구를 함에 있어서 대전제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뉴미디어의 등장 시기와 정착 단계, 그리고 이후 또 다른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단계에서 올드미디어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미디어의 재현과 뉴스담론

미디어 재현에 관한 연구는 외부 세계의 실재와 미디어가 반영하는 실재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디어가 외부 세계의 현실을 어떻게 매개하며, 그 매개 과정에서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가 혹은 왜곡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미디어 재현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다(이종수, 2004). 이러한 논의의 기본 전제는 먼저 미디어 외부 세계라는 일차적 현실이 존재하고, 이것을 반영하거나 재구성한 이차적 실재가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미디어의 재현은 현실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슈미트(Schmidt, 2007)는 미디어가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고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디어의 광범위한 현실 생성 및 조작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홀(Hall, 1997)은 특정한 순간, 특정한 주제에 관한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특정한 담론이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즉,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사회·문화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생산된 담론을 통해 사회의 일상성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은 사회적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 공공 담론의 텍스트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van Dijk, 1985; Fairclough, 1995a/2003; Gamson & Modigliani, 1989). 하틀리(Hartley, 1982)는 담론을 사회 구성의 의미체계로 보고, 이에 따라 뉴스 담론을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텍스트의 사회적 재현으로 해석하였다. 즉,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는 뉴스는 단순한 사실의 기계적 전달이 아니며, 언론과 수용자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에 이용되는 사회적 담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van Dijk, 1998). 이러한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권력 관계 내에서 형성되는 일정한 담론 관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Fairclough, 1995a/2003),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담론 생산자와 담론의 대상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발생한다(Derrida, 1981). 그러므로 특정 미디어 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의 뉴스담론 연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임태섭(1993)은 담론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1992년 당시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방송 3사의 저녁 뉴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방송 뉴스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공정성을 견지하는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특정 언론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밝혀냈다. 백선기(2006)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이라크 전쟁 보도를 하는 데 있어 여타 언론사와 다른 특정한 담론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안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스트레이트성 기사보다는 심층분석이나 해설

기사에 주력하였고, 여타 매체와 달리 전투 현장의 선정적인 소식들 보다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정치적 권력관계 등에 무게를 두었다고 해석하였다. 김세은·김수아(2007)는 뉴스담론을 통해 여성 유권자들을 특정 방식으로 재현하는 언론의 보도 경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미디어 뉴스는 일반 여성 유권자들을 ‘과소재현’ 혹은 ‘이중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을 정치적 담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성해 외 2인(2007)은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적 신자유주의 담론을 재구성한 다음,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뉴스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미디어담론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처럼 정치권력의 유무형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들의 자발적 편집 결정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담론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권력 개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상의 뉴스담론 관련 기존연구들은 특정 사회 현상을 재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언론의 담론화 경향을 조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기호나 텍스트의 의미들이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변형되고, 왜곡되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데에 주목한다. 즉 기호나 텍스트의 ‘역동과정’(dynamic process)이나 ‘변형과정’(transforming process)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언어의 관점에서 특정뉴스에서 이루어지는 기호의 선택과 조합에 의해서 사회 내의 권력관계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백선기·김남일, 2008). 따라서 이러한 담론 분석을 통해 언론이 어떠한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그것이 특정 사회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해석이 가능하다.

3) 뉴스 프레임과 사회적 현실구성

신문이나 방송 뉴스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생산자가 해당 의제를 어떠한 담론을 통해 설정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프만(Lippmann, 1997)은 모든 신문은 어떤 아이টে임을 채택할 것인가, 어떤 위치에 기사를 배치할 것인가, 각각은 얼마나 공간을 차지

할 것인가, 또 얼마나 강조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일련의 선택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즉,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파생되는 담론으로 본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행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언설체 (*body of statements*)로 본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담론으로서의 미디어 뉴스가 행위 대상으로서의 현실을 구성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김수정·조은희, 2005). 현실이 미디어를 통해 자명하고 총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구성되며, 개인적 수준에서도 특정방식으로 해석되고 인지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주요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양승목, 1997), 이러한 구성주의적 미디어 담론 연구 중 뉴스 담론 연구는 프레임 분석 (*frame analysis*)이라는 접근법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기틀린(Gitlin, 1980)의 진보학생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은 미디어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미디어 프레임이라는 개념 틀로서 접근한 선구적 연구로 평가된다(김수정·조은희, 2005). 이후 갠슨(Gamson & Lasch, 1983; Gamson & Modigliani, 1989; Gamson, 1992)은 뉴스 프레임 연구에 핵심 프레임과 포지션 (*position*)을 포함하는 패키지 (*package*)의 개념을 도입하여 뉴스 프레임 연구를 질적이며 양적인 분석방법으로 정착시켰으며, 엔트만(Entman, 1991)은 뉴스 프레임이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특정 측면을 선택해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현실을 현저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개념을 분석틀로 이용해서 1990년대 초 냉전시대에 미국 언론이 해외의 정치적 사건들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미국 언론이 타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특정한 정치적 프레임에 적용시켜 일반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Entman, 1993). 또한 아이엔가와 사이먼(Iyenger & Simon, 1993)은 정치적 현실구성의 프레임 방식을 일화중심적, 주제중심적으로 분류하고, 그 틀에 따라 범죄, 국제테러리즘, 빈곤, 실업, 인종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보도가 책임의 속성 방식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일화중심적 프레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 차원으로 속성화하는 반

면, 주제중심적 프레임은 보다 사회구조적이고 정치 일반적인 요인에 문제의 책임을 속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의 뉴스 프레임 연구 역시 1990년대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훈순(1998)은 IMF 금융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관한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당시의 뉴스 보도가 금모으기 운동을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행사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의 책임을 국민들이 분담해야 할 몫으로 돌렸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과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재철(2001)은 9.11 테러사건의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 '군사적 보복주의', '과격주의', '결사항전', '극단적 대립' 등의 프레임을 밝혀내고, 한국의 9.11 테러 보도가 선정적이며 미국 측의 입장에 편향된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선영(2004)은 각 언론사들이 '세대차이'라는 담론을 재현하는 데 있어 특정 프레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 독자층 세대에 편향적 보도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수정·조은희(2005)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언론보도에서는 '선두', '영웅', '윤리 갈등'과 같은 프레임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반면, 미국 언론에서는 '정책 갈등', '윤리 갈등', '과학 성과'와 같은 프레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 배아 연구라는 동일한 사안이 서로 다른 국가맥락에서 전혀 다른 현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 담론과 프레임은 구성주의적 상관성을 가진다. 뉴스 담론의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 주체의 관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재현구조를 가지며, 언론 텍스트에 반영된 사회관계와 맥락 등의 담론 요인들이 고착화 또는 관행화된 시각을 형성해서 재현된 것이 프레임이다(김원용·이동훈, 2005). 따라서 현실의 사회적 구성을 의미하는 뉴스 보도 프레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신문의 뉴미디어에 대한 보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발행 부수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적인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2개 언론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²⁾ 조사 대상은 크게 텔레비전과 인터넷 관련 기사로 설정했으며 분석 시기는 ‘도입기’와 ‘성숙기’로 설정하였다.³⁾ 텔레비전의 경우 기존 문화사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1960년대를 도입기, 1970년대를 성장기 및 경쟁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성숙기,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를 쇠퇴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는 타 매체의 발달사에 비해 매우 급속도로 성장한 점에 비추어 1990년대를 도입기 및 성장기, 2000년대를 경쟁기 및 성숙기로 설정하여, 각 시기 중 한 해를 임의로 선정하고 1년 동안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텔레비전 담론 분석대상으로는 1969년과 1992년, 인터넷의 경우 1995년과 2000년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1968년까지 텔레비전 보급률이 10만 대를 넘어섰음에도 세대당 보급률은

2)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분석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본 논문의 목적으로 볼 때 해당 일간지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 논문의 주제를 흐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대상 시기 중 일부였던 1969년은 대표적 진보지인 <한겨레신문>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지의 위치가 확립되기 전이었다는 점도 연구대상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로 설정한 것에 대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구분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product life cycle) 개념을 인용한 것인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란 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시장에서 사라지기까지의 경제적 양상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도입기-성장기-경쟁기-성숙기-쇠퇴기’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기반으로, 각 매체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현상들이 발생하는 단계를 ‘도입기’, 그러한 새로운 현상 및 사건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 되어 새롭고 신선했던 뉴미디어가 일상적 미디어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을 ‘성숙기’로 설정하였다.

2.1%에 불과할 정도로 1960년대 텔레비전 붐은 본격적인 대중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1969년에는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생중계로 인해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해 전자산업육성법의 시행 및 국민소득의 향상, 지방중계소 신설에 따른 가시청지역의 확대, 그리고 민영방송사인 MBC의 개국 등으로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였다(임종수, 2004).

1992년의 상징적 의미는 1991년 말 민영방송인 SBS가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공·민영 방송 경쟁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후 1년간 한국사회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한 1993년부터는 다음 세대의 뉴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뉴미디어’로서의 텔레비전은 1993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경쟁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세대의 뉴미디어인 인터넷은 1992년부터 ‘인터넷’ 혹은 ‘인터넷트’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사가 신문상에 등장⁴⁾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코넷 서비스를 통해 상용화되었다(최선규·이한영, 2005). 일단 상용화된 인터넷은 미디어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⁵⁾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수가 1994년 8만 명에서 1998년에는 350만 명을 넘어서는⁶⁾ 초고속 성장 양상을 보였다. 인터넷 관련 기사 역시 1993년 1건에서 1996년 1천여 건으로, 급속한 증가 양상을 보였으며, 기사 수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해에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이 처음으로 등장⁷⁾하고 첫 인터넷 여론조사가 실시⁸⁾되는 등 인터넷이 일상에 빠르게 도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므로 인터넷 매체의 도입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4) “학술망 인터넷 이전”, <중앙일보> 1992. 10. 11.

5) 일례로 미국에서 인구 5천만 명에게 도입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라디오는 30년, TV는 13년, PC는 16년이었던 것에 비해 인터넷은 불과 4년만이 소요되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최선규·이한영 2005에서 재인용).

6) <한국 인터넷 백서> 2000년호

7) 사이버 인터넷 역사박물관(<http://www.i-museum.or.kr/main.html>).

8) “노태우 비자금 인터넷 여론조사(인터넷 화제)”, <조선일보> 1995. 11. 9, 35면.

한편 2000년에 이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1,900만 명으로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였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역시 4백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였다. 월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률 등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⁹⁾ 인터넷이 한국인들의 일상에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신문의 인터넷 관련 기사의 수도 역대 최대¹⁰⁾로 나타나 이 시기에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일상적 미디어로서 거의 정착했다는 점에서 2000년을 인터넷의 성숙기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해의 기사 검색은 해당 언론사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를 일차적으로 검색한 후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선별 작업을 통해 텔레비전 관련 기사 총 95건, 인터넷 관련 기사 총 389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신문 기사의 구체적인 담론 분석을 위해 버렐슨(Berelson)의 콘텐츠 분석과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5b)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그리고 프레임 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이들 미디어 분석방법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에서 언어 철학의 주장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현실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며 담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Phillips & Jorgensen, 2002; 김세은·김수아 2007에서 재인용).

버렐슨의 콘텐츠 분석은 초기 미디어 형태인 신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Richardson, 2007). 그는 신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저널리즘 콘텐츠 분석방법이 가지는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첫째, 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과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효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9) <한국 인터넷 백서> 2001년호.

10) <조선일보> 1,416건, <중앙일보> 1,193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4>를 참고할 것.

것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영국의 유력 일간지가 ‘이슬람’, ‘무슬림’을 다룬 기사를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게 재현했다면, 이것은 사회적 사실보다는 해당 일간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명백한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유의미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신문 기사를 읽었을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작성한 생산자의 의도대로 읽게 된다는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석방법은 양적 분량이 가지는 유의미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하나의 신문은 동일한 단어를 20번 반복한 반면, 다른 신문은 단 2번만 반복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정한 의미의 차이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Berelson, 1952).

비판적 담론 분석은 페어클라우의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페어클라우는 텍스트에서의 담론, 헤게모니와 같은 한 사회의 정치적·이념적·문화적 차원에서의 패권과 지배의 조합 개념을 접목시켜 상호 담론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기존 연구자들이 주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하였던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내부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밝혀내고 그 속에서 사회·정치적 지배를 재생산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데 있어 담론의 역할을 밝혀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디어는 담론 생산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비판적 담론 분석의 집중적 연구대상이 된다(Bell & Garrett, 1998).

이러한 담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론 중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어휘나 표현을 유목화하여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실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정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신문이 뉴미디어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윤곽을 잡는 데 유용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신문 매체가 뉴미디어의 등장 시기와 정착 시기에 어떤 유형의 주제에 비중을 두어 보도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언론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 연구는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편 개념적 산만함이나 이론 및 분석방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김원용·이동훈, 2005), 이러한 점에서 프레임 연구 방법의 성격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레임 연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준웅(2000)에 따르면, 프레임 연구는 크게 ①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 ② 텍스트 분석적 접근, ③ 사회운동론적 접근, ④ 예상이론적 접근, ⑤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텍스트 분석적 접근은 저널리즘 분야에서 뉴스의 가치, 이데올로기적 성격, 편파성 또는 뉴스가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나 사건의 개요를 전달하는 구조 등 뉴스에 대한 보다 심층적 설명을 위한 분석방법으로(이준웅, 2000), 본고에서는 이 유형의 프레임 분석방법을 원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콘텐츠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기사들을 필터링한 다음, 2차적으로 구체적인 담론 분석을 통해 핵심주제와 주요 수사적 어휘 등을 추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담론 분석 결과를 다시 일정한 프레임별로 정리하여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4. 뉴미디어에 대한 올드미디어의 담론 구성

1) 도입기(1969) 텔레비전: 수준 낮은 비교육적 매체

1969년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TV로 생중계하였으며, MBC가 시험 방송에 들어가는 등 방송계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은 해였다. 또한 일일연속극 <개구리 남편>(MBC, 1969)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TV 연속극이 사회적인 문화 트렌드로 새롭게 등장한 해였으며(임종수, 2004),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텔레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69년 한 해 동안 보도된 텔레비전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85건, <중앙일보> 47건으로 총 13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TV 절도사건, 프로그램 안내 등의 정보제공, 사건 보도 기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15건, <중앙일보> 14건으로 총 29건이다.

이 시기 관련 기사는 크게 텔레비전의 악영향에 관한 기사와 선진국

<표 1> 도입기(1969) 텔레비전 관련 신문 담론

형성 담론	개념 정의	수사적 어휘
텔레비전의 악영향	'비교육적인'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 어린이에 악영향 우려 / 자녀 교육 위협 / 아이큐 낮은 / 의미불명의 토막 논센스
	'퇴폐적이고 저속한'	섹스와 성 / 대중에게 주는 나쁜 영향 / 야비하고 저속한 / 퇴폐적인 / 오락적인 기능에만 중점 / 전혀 우습지 않은 원시적 개그 / 저속한 내용의 프로를 삼가도록 / 지나친 폭력장면 / 건전한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 타락한
선진국과의 비교	'수준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판이한 / 통조림 드라마 / 부자유스러운 / 교발의식이 약한

과 국내의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악영향 관련기사는 주로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비교육적인 내용과 대중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선진국과의 비교 담론은 주로 비관적인 관점에서 국내의 방송 현실을 평가하는 기사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매체

도입기에 신문은 텔레비전을 교육적 도구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다수의 기사들이 텔레비전은 교육적이고 반듯한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판할 때 저질화 논란의 지지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신문의 도덕적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담론의 근거가 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텔레비전을 소개할 때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경계성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기술적 부분에서는 서구를 지향하되 내용적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문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¹¹⁾

IQ 낮은 중학교 오락회 같은 TBC-TV의 <즐거운 텔스타>(20일, 日, 저녁 7시 30분)는 갈수록 태산이라 저능 프로의 대표격이다. ... 창가와 퇴폐적인 춤(어쩌면 하나같이 관절 빠진 듯 흔들거리기만 하는지)을 추고 는 의미 불명의 토막 난센스, 그나마 때론 암기 못해 화면 밖 도움을 받아 내뱉는 치기 100%의 전혀 우습지 않은 원시적 개그를 한마디씩 하는데 국민의 재산인 전파가 아까울 지경이다. (<조선일보> 1969. 4. 22. “방송 주평”)

‘텔레비전 스크린’에 지나친 폭력 장면이 비치고 있어 건전한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최근 영국에서 문제되고 있다. (<중앙일보> 1969. 4. 26. “TV 속의 폭력”)

... TV가 오락적인 기능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대중에게 둔 미디어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저속한 오락이 대중에게 주는 나쁜 영향과 함께 TV운영자의 반성을 요하고 있다 ... 한국 TV의 오락 프로는 야비하고 저속한 수준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드라마도 소시민의 타락한 생활 형태나 사치, 낭비의 경향을 조장하는 등 가장 타락된 인간상을 과대 묘사하기가 일쑤다. (<조선일보> 1969. 11. 23. “TV와 사회적 책임, 건전한 사고자료 제공을”)

당시의 신문은 텔레비전을 동등한 수준의 매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교양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락적 기능에만 치중하는 저질 매체로 재현하고 있다. 당시 텔레비전 관련 기사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5%는 텔레비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나쁜’, ‘폭력’, ‘저질/저속’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식 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을 ‘오락’의 대립항에 위치시킴으로써 ‘텔레비전은 궁극적으로 교육적이어야 하는데,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11) 이러한 텔레비전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 임종수(2008)는 한편으로 근대성의 오브제로서 세련되고 계몽적인 서구적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하는 내용과 사용상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2) 선진국에 비해 수준이 낮은 텔레비전 문화

1969년에 보도된 총 29건의 분석대상 기사 중 16건이 해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해외의 텔레비전 산업 현황, 문화에 관한 소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었다. 이 중에는 해외의 선정적 텔레비전 문화에 대한 비판 기사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앞서 가는 텔레비전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으며 간혹 이를 토대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기술이나 시장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 아직도 보수적인 기질이 많은 프랑스인들은 전위적인 쇼는 딱 질색이기 때문이다. 외국쇼를 보는 시청자는 8~12%에 불과하다 하니 우리나라 실정과 판이하다. (<중앙일보> 1969. 2. 8. “프랑스 TV 방송”)

미국의 액션스릴러 작품 <제 5전선>과 TBC-TV에서 방영중인 인기극 영화 <보난자> 등을 (우리나라의) <짚레꽃>, <밀물>, <빨간 카네이션> 등과 비교해 볼 때 통조림 드라마¹²⁾가 얼마나 부자유스러운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69. 8. 10. “TV와 영화, 미국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 당시 신문은 선진국의 텔레비전 관련 기술과 방송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적 신뢰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의 방송 기술과 수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텔레비전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콘텐츠의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텔레비전으로 인해 야기될 개방적 성의식에 대해서 경계하는 기사가 많다. 또한 해외 선진국 중에서도 오락적인 텔레비전 시청보다는 신문이나 책을 읽는 국민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텔레비전에 열광하는 한국 국민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선진 기술 및 문화에 비해 한국의 텔레비전 문화는 현저하게 수준이 낮다는 논리가 비교 담론을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당시 한국의 드라마 제작 여건이 열악해 모든 촬영을 스튜디오에서만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국 드라마는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만 촬영되어 틀에 박힌 듯이 똑같은 배경과 비슷한 소재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당시 언론에서는 ‘통조림 드라마’라는 비아냥조의 별명을 지었다.

2) 성숙기(1992) 텔레비전: 공공성이 결여된 저질 매체

1992년은 가구당 텔레비전 보급률이 98.2%에 이르고, 13) 상업방송국인 SBS가 첫 돌을 맞이하면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 체제가 본के도에 올랐던 해였다. 이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관련 기사도 <조선일보> 568건, <중앙일보> 26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TV 산업에 대한 단순 사실 보도나 이 당시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표 2> 성숙기(1992)의 텔레비전 관련 신문 담론

형성 담론	개념 정의	수사적 어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저속한 매체	‘저속한’	저질화 경쟁을 기도 / 흥미유발에 치중한 나머지 본질이 왜곡되거나 퇴색 / 전파낭비 / 저질성은 위험수준 / 품위 무시하는 / 성표현이 날로 위험수위에 / 노골적인 / 폭력과 섹스가 판치는 / 바보상자 / 섹스상자 / 작품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벗겨서 / 생산적이지 못하거나 가족들의 눈총을 받을 / 걸만 번지르르한 / 현실성이 없고 과대포장된 / 지나치게 회화화된 내용과 선정, 폭력적인 장면들로 채워지고 / 잔인하고 외설스런 장면
	‘공공성이 결여된’	상업성을 과다하게 노출 / 사행심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 외국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영화와 비디오 / 방송의 공익성이나 윤리성 향상 노력이 미흡 / 국민의 이해를 둔화시키고 가치관을 왜곡 / 탈선과 방황 / 가정의 참뜻은 온데간데 없어 / 보도의 편파성 / 과대포장으로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 동시간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선진국과의 비교	‘낮은 방송 수준의’	방송사의 무책임한 편성 / 내용의 차별화, 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 현재의 수준...아직 상당히 먼훗날의 얘기 / 방송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선진국의 방송은 초 단위까지 방송시간을 지키고...

13) “에어컨-PC 수요 가장 높다: 냉장고-TV 등은 보유율 98% 넘어”, <조선일보> 1992. 2. 20, 7면.

TV 토론회 관련 기사 등을 제외한 기사 66건(〈조선일보〉 18건, 〈중앙일보〉 48건)을 분석했을 때, 텔레비전을 재현하는 전반적 논조에 있어서는 1969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텔레비전에 대한 기사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면서 텔레비전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기사도 늘었는데, 총 66건 중 32건이 텔레비전의 유해성과 같은 부정적 내용의 기사였다. 주로 ‘저질적인’, ‘선정적’, ‘폭력적’ 등의 어휘를 통해 저속한 텔레비전이라는 담론 및 ‘상업적’, ‘공익성 미흡’, ‘탈선’ 등의 어휘를 통해 공공성이 결여된 텔레비전이라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방송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논조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선진국과의 비교 담론을 형성했다. 반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기사는 1969년 3건에서 1992년 5건으로 2건이 증가하는 데 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저속한 매체

텔레비전 도입기에 이어 여전히 ‘텔레비전은 교육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는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텔레비전 시청 자체를 ‘무기력’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전제하에 생산되는 기사들이었다. 또한 ‘공공성 결여’ 담론은 텔레비전이 상업성에 치중한 나머지 방송의 공익성이나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해외 문화 소개 프로그램과 상금이 걸린 퀴즈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각각 외국 문물의 무분별한 수용과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TV 오락프로가 저질이라는 것은 흔히 듣는 얘기다. 특히 코미디의 저질성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이 공론이다. ... 방송의 질적 향상 노력을 촉구한다. (〈조선일보〉 1992. 10. 2. 사설 “품위 무시하는 TV 프로”)

방송에서의 성 표현이 날로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서울방송이 개국한 이래 올 들어 각TV 국의 드라마와 토크쇼 등에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남녀 간의 클로즈업된 키스장면, 노골적이고 세부적인 정사장면 등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일보> 1992. 10. 16. “TV 프로 성 표현 위험수위”)

TV가 <바보상자>에 이어 <섹스상자>란 불명예스런 별명을 하나 더 얻지 않기 위해서는 요즘같이 작품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벗겨서 한몫을 보려는 방송현업인의 제작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1992. 10. 16. “TV, 섹스상자(?)”)

… 흥미를 위주로 한 소재선택이나 구성, 인기 연예인 일색인 진행자의 선정, 사행심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퀴즈프로 등이 상업성을 과다하게 노출시켜 방송의 공익성이나 윤리성 향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1992. 1. 26. “보다 나은 민방 TV를 위해”)

이러한 ‘선정성’, ‘폭력성’ 등과 같은 텔레비전의 유해성 담론에 대해서는 ‘가족’, ‘대화’ 등이 대립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텔레비전 미디어가 개인 중심의 매체가 아닌 가족 중심의 매체라는 전제하에 생성되는 담론이다. 이는 모바일 TV, VOD 등과 같은 개인적 성향의 매체의 등장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신문 매체의 비판 기제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반세기가 지나면서 가족의 개념과 미디어 수용 행태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문은 텔레비전을 ‘온가족이 둘러앉아 보는’ 매체로 담론화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다운 명실상부한 모범국이 되려면 구멍 뚫린 가정의 골격을 바로 세워 저녁식탁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공동의 관심사를 주고받고, 학교에서는 규율을 바로잡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한 미국의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중앙일보> 1992. 5. 1. “미국—범죄도 일등, 가정붕괴—TV 폭력방영이 주원인 진단”)

가족 시간대 TV 프로그램에 비교육적인 장면이 많다. 끔찍한 폭력 장면들이 불쭙불쭙 튀어나오고 가족 오락 프로에 스캔들 인물이 등장하는 등

가족이 둘러앉아 보기에는 민망한 내용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앙일보〉 1992. 5. 1. “일부 TV 프로: 청소년 ‘폭력 불감증’ 부를 우려”)

(2) 선진국에 비해 수준이 낮은 텔레비전 문화

1969년에 비해 해외 토픽과 같은 성격의 외국 텔레비전 산업이나 문화 관련 기사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텔레비전 제작 환경 등을 비판하는 기제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특히 한국 방송사의 제작 기술과 방송의 질적 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도입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식은 자유로워졌는데, 내용의 차별화, 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미국 할리우드처럼 언제 봐도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못하는 게 국내방송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1992. 6. 26. “TV 프로 장르 벽 허물기 한창”)

TV 방송사들이 방송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시간의 준수 여부는 방송사 편성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일본 NHK를 비롯한 선진국의 방송은 초 단위까지 방송시간을 지키고 있다… 방송사의 무책임한 편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중앙일보〉 1992. 12. 5. “TV 3사 방송시간 제멋대로”)

3) 도입기(1995) 인터넷: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국익적 매체

인터넷이 신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사화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1995년 한 해 동안 보도된 인터넷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183건, 〈중앙일보〉 243건으로 총 42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서비스 관련 홍보성 기사와 인터넷 산업 동향 등을 제외한 담론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34건, 〈중앙일보〉 72건으로 총 106건이다. 〈중앙일보〉의 인터넷 관련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중앙일보〉가 국내 신문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표 3〉 도입기(1995) 인터넷 관련 담론

형성 담론	개념 정의	수사적 어휘
경제적이고 편리한 매체	‘교육적으로 유익한’	어린이 두뇌 개발 광장 / 교육의 재미있는 여행 공간 / 거대한 정보의 광산 / 해외 유명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안방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무궁무진한 인터넷 응용분야 /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버는 / 경제적이면서도 유행한 / 전세계를 수초 사이에 연결하는 /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계로 열린 창’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일조 / 우리 가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 /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각 나라사람들의 성격을 짐작할 정도 / 전세계에 e메일을 보내거나 교류
국가경쟁력으 로서의 인터넷	‘세계와 경쟁하는’	인터넷 항구를 장악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 선진국과의 격차 / 각국의 노력과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 대한민국은 ... 눈을 씻고 찾아 볼래야 / 우리나라는 ... 구한말이나 다름없는 / 아직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선정적이고 위험적인 매체	‘선정적인’	음란물의 보급창구 / 음란물 범람 / PC 홍등가 / 컴퓨터 통신에 올라오는 음란정보들은 전세계적 사회문제 / 인터넷 홍등가 / 불건전한 정보 공해
	‘중독성의’	중독성이 강한 / 마약과도 같이 빠져드는 / 약이나 수술로도 치료하기 힘든 / 무절제한 사이버문화 탐닉 / 도덕적 오염이나 인격 파탄
	‘치료가 필요한’	가족단위 외식이나 여행을 자주 / 사회단체 등 타인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는 모임활동에 적극 가입 / 신문이나 잡지 등 종이매체를 읽는 것 / 부모의 사려 깊은 보살핌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적 기사보다는 인터넷의 편리함에 관한 기사를 많이 생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입기 인터넷에 대한 신문의 담론은 크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매체’,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인터넷’, ‘선정적이고 위협적인 매체’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는 인터넷에 대해 ‘교육적으로 유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세계로 열린’, ‘세계와 경쟁하는’ 그리고 ‘선정적인’, ‘중독성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개념으로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

(1) 경제적이고 편리한 매체

도입기 인터넷 관련 기사 중에는 긍정적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다. 대부분이 인터넷의 편리함과 무한한 가능성, 특히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사이며 인터넷의 활용을 국가적 이익과 연결시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이러한 긍정적인 담론 생산은 주로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통한 ‘교육적 효과’와 빠르고 효율적인 인터넷의 특성이 가져다 줄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은 인공위성이 불과 1 시간 전에 찍은 구름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 농부들에게 이 같은 기상정보는 더 없이 유용하다. (<중앙일보> 1995. 6. 22. “농사에도 인터넷 이용 활발”)

... 정보시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영어와 컴퓨터를 즐겁게 익히면서 깨닫는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여행공간이 되도록 인터넷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일보> 1995. 10. 31. “주부를 위한 정보화 특강”)

...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이 그것이다. (<조선일보> 1995. 11. 28. “인터넷은 거대한 ‘정보창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의 소통이 현실화되었음을 보도하는 긍정적 기사들도 빈번히 발견된다. 해외의 문화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나 문물 역시 전세계적으로 소개되고 향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계로 열린 창’으로서의 인터넷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 최근 이슈가 되는 논쟁거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주제로 포럼난에서 토론논쟁을 붙이고 있어 언어, 문화, 관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도 일조(一助) 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5. 9. 23. “세계뉴스의 창 ‘인터넷’: 50여국 120개 권위 紙 서비스”)

국내 최신 인기가요가 컴퓨터통신망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 〈가요 톱10〉을 담당하는 KBS TV 2국 경명철 부장은 “이번 인터넷 서비스가 우리 가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5. 6. 21. “가요톱텐 가요 세계화 선봉: 국내 최신인기곡 인터넷서비스”)

대전 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산학을 공부하고 하는 정영민씨 … 한 달 이상 꾸준히 관계가 지속되는 온라인 친구만도 10여 명에 이르게 된 정씨는 이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각 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짐작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중앙일보〉 1995. 5. 7. “인터넷으로 지구촌 누비는 정영민씨”)

(2)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인터넷

한편, 도입기 인터넷 관련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인터넷 담론이다. 이는 앞서 텔레비전 담론에서 나타났던 선진국과의 비교의식에서 한 발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과의 경쟁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 시설 현황이나 이용자 수에 관한 통계 등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인터넷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장 많은 컴퓨터가 연결돼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 접속 컴퓨터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순. 우리나라도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용국가 중 18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중앙일보〉 1995. 2. 4. “인터넷 이용 인구, 한국은 18위”)

미국 컴퓨터서적 출판사 사이벡스가 최근 펴낸 인터넷 안내서 *travel on the internet*은 세계 각국 관광 정보가 있는 영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터키도 있고 수리남도 있다. 에티오피아도, 도미니카공화국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쿠바, 북한처럼 빠져있어 눈을 씻고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조선일보〉 1995. 7. 18. “인터넷에 한국코너 없다”)

정보화 시대 — 인터넷 시대에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인터넷 항구를 장악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 이런 인터넷 국제정치역학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풍지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관한 한 구한말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 1995. 7. 19. “인터넷 활용을”)

(3) 선정적이고 위협적인 매체

총 106건 중 인터넷의 선정성과 폭력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보도한 기사는 19건으로, 단일 담론으로는 가장 적은 비중이었다. 도입기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담론 재현에 있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총 34건 기사 중 10건이 인터넷을 묘사하는 단어로 ‘범죄’, ‘중독’, ‘탐닉’ 등과 같은 용어를 활용했던 것에 반해, 〈중앙일보〉는 총 72건 중 단 9건만이 ‘쓰레기’, ‘범죄’ 등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기사의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병리학적 비정상성에 초점을 맞춘 비판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과거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 하도록 하겠다. 반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조선일보〉 11건, 〈중앙일보〉 3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중앙일보〉가 자사 홈페이지

지를 통해 인터넷 사업의 전면에 직접적으로 뛰어들면서 인터넷 가치의 효용성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를 많이 생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줄어든 것이라 판단된다.

머드게임을 한 번 시작하면 세계 각국의 인터넷 이용자와 함께 잡담과 의견을 교환하며 게임을 하는 묘미에 사이버노트(cybernaut, pc통신 이용자)들은 마약과도 같이 거기에 빠져든다. 다른 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한 것이 특징. (<조선일보> 1995. 6. 9. “인터넷 게임 mud 열풍: 중독성 강해 연구활동 지장도”)

컴퓨터 통신망에 올라오는 음란정보가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5. 8. 4. “컴퓨터 음란정보 이렇게 막는다”)

약이나 수술로도 치료하기 힘든 정보화시대의 난치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pc통신 중독증후군이다. (<조선일보> 1995. 8. 18. “pc 통신 중독증 확산”)

무절제한 사이버 문화탐닉 현상은 청소년의 도덕적 오염이나 인격의 파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창조적 에너지까지도 함께 고갈시키고 말 것이다. (<조선일보> 1995. 9. 20. 사설 “인터넷 흥등가”)

앞서 텔레비전 매체에 대한 신문의 재현을 통해 당시 신문이 텔레비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해결책 혹은 이항대립 관계로 ‘가족 이데올로기’와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이용’ 등을 설정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 재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는데,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인터넷 중독은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담론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단위 외식이나 여행을 자주 하고, 사회단체 등 타인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는 모임활동에 적극 가입하며, 신문이나 잡지 등 종이매체를 읽는 것 등을 pc 통신 중독증세 치유 방법으로 권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5. 8. 18. “pc 통신 중독증 확산”)

컴퓨터 보안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공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제법규나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파수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것은 부모의 사려 깊은 보살핌이다. (〈조선일보〉 1995. 12. 14. “인터넷 음란정보 차단하라”)

4) 성숙기(2000) 인터넷: 인터넷포비아에 의한 부정적 담론 확산

2000년은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던 인터넷 관련 기사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터넷 관련 기사 수는 2000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1996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표 4〉). 2000년 한 해 동안 보도된 인터넷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1,416건, 〈중앙일보〉

〈표 4〉 연도별 인터넷 관련 기사 수(1992~2007)

연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1992	-	1
1993	1	-
1994	14	51
1995*	183	243
1996	787	657
1997	431	529
1998	406	284
1999	835	597
2000*	1416	1193
2001	688	632
2002	472	346
2003	455	401
2004	442	355
2005	482	329
2006	401	231
2007	407	211

〈표 5〉 성숙기(2000) 인터넷 관련 신문 담론

형성 담론	개념 정의	수사적 어휘
고조되는 인터넷의 역기능	‘범죄로 가득한’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불법천지/ 욕설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의 유포/ 가장 많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는 도박과 음란물/ 인터넷은 사기꾼의 천국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고립 / 현실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 인터넷에 빠질수록 고독 / 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 학교생활에 적용하지 못해 자퇴하거나 대안학교 문을 두드리는 / 사이버 세계가 병들고 / 인터넷 아노미 / 괴리감이 심화 / 인터넷 세상은 또 다른 감옥
	‘치료가 필요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 / 부모는 무엇보다 먼저 자녀와 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터넷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삼막한 아파트에 사이버 공동체를 / 한가족 같은 동네가 다시 등장 / 마음의 장벽 허무는 / 옛 친구를 만나 반가워하는 / 인터넷으로 지역갈등 푼다 / 교분을 나누는
	‘편리한’	삶이 윤택 / 삶은 몰라보게 풍요로워질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 인터넷이 있는한 뉴욕은 내 옆에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표현의 자유 / 조직의 벽을 뛰어넘는 / 사회가 새롭게 개편 / 새천년 새희망 /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 권위주의와 달리 다중심을 가능케 하는 / 자유와 도전
국가 경쟁력으로서 의 인터넷	‘아직은 부실한’	실제 활용은 세계 최저 수준 /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이 인터넷 사회의 리더로 부상해야 / 초고속 성장 / 우리나라는 지식 정보화 선진국 /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 인터넷이 국가의 힘 / 우리민족은 인터넷과 지식 기반 경제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음

1,193건으로 총 2,60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인터넷 서비스 관련 홍보성 기사와 자사 홈페이지 소개 등과 같은 단순 정보 기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177건, <중앙일보> 106건으로 총 283건이었다.

2000년에 보도된 인터넷 관련 기사 중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기존 산업, 서비스, 시스템의 인터넷화에 대한 기사이다. “이제 반상회도 인터넷에서”(〈조선일보〉 2000. 11. 17), “인터넷으로 유아용품 똑딱”(〈조선일보〉 2000. 4. 14), “인터넷으로 최면 걸고 치료까지”(〈조선일보〉 2000. 3. 17) 등과 같은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용자들에게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또한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정보와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기사도 증가해서 수용자로 하여금 어느새 신문이 인터넷 매체를 섭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소개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도입기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1) 고조되는 인터넷의 역기능

1995년 당시 신문의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선정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2000년의 신문 담론은 실제 사회의 범죄로 연결되는 과정 및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 역기능의 고조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어휘는 대부분 ‘불법’, ‘사기’, ‘범죄’, ‘패륜’, ‘사회로부터의 고립’, ‘인터넷 중독’ 등과 연결되며, 이러한 기사들은 상당수 범죄와 인터넷과의 직접적인 관련 정황을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대 청년 셋을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터넷 증권시장에 헛소문을 퍼뜨려 불과 1시간 만에 수십만 달러를 챙긴 이 사건은 인터넷이 사기꾼의 천국임을 보여준다. (〈중앙일보〉 2000. 1. 8. “첨단 인터넷 범죄”)

한국인의 사이버 세계가 병들고 있다. PC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이 ‘말(語)의 쓰레기장’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인이나 단체를 온갖 욕설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불법천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00. 7. 24. 논단 “인터넷 폭력 엄단해야”)

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거나 대안학교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도 급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0. 11. 7. “청소년 50만 인터넷 중독”)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돈을 받고 살해한 ‘축탁 살인’은 가상공간에 몰입된 ‘사이버 인간’들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중앙일보〉 2000. 12. 18. “인터넷 ‘축탁 살인’ 등장인물 사이버 중독”)

이와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은 ‘인터넷 공간’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되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가족’과 ‘인쇄매체’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분석대상이었던 신문 매체들이 가진 보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보다 맹목적으로 과거 담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신문의 관례적 보도행태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기사 중 심층 취재는 2건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사건·사고 기사 정도의 분량과 내용에 불과해 그 해결책 역시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담론의 반복 생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00. 11. 7. “청소년 50만 인터넷 중독”)

가정에서 부모는 무엇보다 먼저 자녀와 대화를 통해 인터넷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0. 11. 13. 논단 “인터넷 중독 처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일 것이다. 요즘은 ‘킴맹 부모’들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000. 1. 22. 논단 “무공해 인터넷을 위하여”)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체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기사는 1995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기사에 대비한 상대적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95년 인터넷에 호의적인 기사는 전체 106건 중 41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전체 283건의 기사 중 48건으로 약 17%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담론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가치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기사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졌다는 논조의 ‘공동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하며 신속함을 통한 ‘편리함’, 표현의 자유, 공평함, 도전 등의 어휘로 표현되는 ‘가능성과 기회’ 등을 핵심주제로 담아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기사들은 대부분 ‘편리함’, ‘가능성’과 같은 프레임에 제한된 반면, ‘대안적 매체’나 ‘공론장’과 같은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호남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취지로 1999년 5월 개설된 사이트 ‘영호남 어울마당’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앙일보〉 2000. 1. 18. “인터넷으로 지역갈등 푼다: 영호남 어울마당 사이트”)

최근 아파트 단지를 묶는 인터넷서비스도 도입중이다. 대화가 단절된 삭막한 아파트에 사이버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운 향수roman 남아 있던, 한 가족 같은 동네가 21세기 첨단 인터넷 세상에 기적처럼 다시 등장하는 것도 기대해볼만하다. (〈중앙일보〉 2000. 2. 2 “마음의 장벽 허무는 인터넷”)

이들은 “인터넷이 광속으로 발전해,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며 ... “인터넷에 대해 괜히 겁먹을 것 없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은 ‘인터넷에 하루 1시

간만 투자하면 삶이 훨씬 윤택해진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0. 4. 7.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의 8개월 뒤")

(3)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인터넷

1995년에 이어 2000년에도 국가 경쟁력으로서 인터넷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1995년에는 한국이 처한 인터넷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고 '뒤처지는' 것으로 재현하고 있는 데 반해 2000년에는 한국의 위치가 선진국과 역전되어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통해 IT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담론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희망적', '점령', '초고속 성장', '가능성' 등의 어휘를 통해 인터넷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담론을 생산했다.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쓰는 환경은 세계 최고. 그러나 실제 인터넷 활용은 세계최저 수준. (<조선일보> 2000. 5. 31. "한국공무원 인터넷 환경 '최고' 실제 활용은 '꼴찌'")

누구나 인정하듯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 중이다. ... 한국이 인터넷 사회의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선일보> 2000. 12. 15. "〈비즈니스 2.0〉의 미첼 편집장 방한: 한국, 인터넷 리더로 부상 가능성")

인터넷 인구 1천 6백여만 명 (세계 7위), 휴대폰 이용자 2천 6백여만 명 (세계 6위). 각종 수치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지식정보화 선진국이다. 인프라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중앙일보> 2000. 11. 29. "초고속 인터넷 정보화 서둘러야")

새로 오는 세기는 우리에게 천년 만에 오는 기회의 세기다. 우리 민족은 인터넷과 지식기반 경제에 적합한 여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바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앞설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앙일보> 2000. 1. 6. "인터넷이 국가 힘이다")

5)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의 보도 프레임

이제까지 살펴본 담론 분석 결과에 따른 뉴스 프레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텔레비전 관련 기사의 경우, 도입기에는 자녀 교육을 위협하는 매체이자 대중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퇴폐적이고 저속한 오락 매체라고 정의하면서 윤리적 잣대로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프로그램의 구성이 허술하고 사회고발과 같은 의식이 부족하다는 담론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입기 텔레비전에 대한 신문의 보도 프레임은 크게 '윤리 프레임'과 '비교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성숙기에도 신문은 텔레비전이 흥미유발에 치중하는 걸만 번지르르한 저속한 매체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공공 매체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윤리 프레임'을 기반으로 텔레비전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입기와 마찬가지로 성숙기에서도 선진국과의 비교 담론을 통해 국내 방송의 비독창성을 문제 삼거나 낮은 방송 시간 준수율 등을 비판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문의 텔레비전에 대한 보도 프레임은 도입기나 성숙기 모두 '윤리 프레임'과 '비교 프레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인터넷 도입기에는 어린이의 두뇌개발을 증진시키며 전세계로 통하는 정보의 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인 담론이 거의 전무했던 텔레비전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이며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프레임'에 기반한다. 선진국과의 비교 담론 역시 형성되었지만, 텔레비전 담론과의 차이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의 상황을 비하하기보다는 선진국을 경쟁상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 각국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우위 점령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논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역시 '비교 프레임'에 기반한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인터넷 흥등가',

〈표 6〉 시기에 따른 텔레비전 보도 프레임

시기	담론	보도 프레임
도입기 (1969)	자녀 교육을 위협하는 매체이자 대중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퇴폐적이고 저속한 오락 매체	윤리 프레임
	프로그램의 만들새가 허술하고 사회고발과 같은 높은 의식 수준이 부재하다는 평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비교	비교 프레임
성숙기 (1992)	텔레비전이 흥미유발에만 치중하고 내용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며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속한 매체 / 파소비를 부추기고 외국 문물의 유입을 통해 국민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며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윤리 프레임
	여전히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방송의 비독창성을 문제 삼거나 낮은 방송 시간 준수율을 개탄	비교 프레임

‘무법의 하이웨이’ 등과 같은 직접적 표현을 통해, ‘인터넷은 음란물이 범람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공간이며, 일단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중독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매체’라는 내용으로 형성된다. 이렇듯 인터넷을 비윤리적 매체일 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병리학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윤리/병리 프레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성숙기의 인터넷에 대해서는 우선 사이버 공동체를 통해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담론이 ‘발전 프레임’에 기반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입기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의 ‘비교 프레임’도 제시되었는데, 차이점이라면 도입기에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빨리 좁혀야 한다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성숙기에는 한국이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통해 인터넷 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자위적 태도라는 점이다. 어조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비교 프레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인터넷의 역기능이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되었다. 즉, 인터넷은 불법천지이자 사기꾼의 천국으로, 이와 같이 병든 사이버 세계에 사람들이 중독되고 고립될 경우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화로 치료되어야 한다는 담

론이 이 시기 부정적 인터넷 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입기의 부정적 담론과 마찬가지로, 성숙기의 인터넷 관련 보도 역시 인터넷이 반사회적 비행을 유발하며 그에 따른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윤리/병리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시기에 따른 인터넷 보도 프레임

시기	담론	보도 프레임
도입기 (1995)	긍정적 인터넷은 지식개발의 광장이며 전세계로 통하는 거대한 정보의 광산이고 유익한 정보들에 손쉽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	발전 프레임
	부정적 세계 각국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은 이러한 인터넷 기술에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비교 프레임
	부정적 인터넷은 음란물이 범람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가상공간으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매체	윤리/병리 프레임
성숙기 (2000)	긍정적 사이버 공동체를 통해 화합의 공간을 만들고,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며, 사회를 새롭게 개편하여 자유와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발전 프레임
	부정적 일부 부정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한국이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통해 인터넷 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위치에 올라있다	비교 프레임
	부정적 불법과 도박, 음란물이 넘쳐나는 병든 사이버 세계에 사람들이 중독되고 고립되며 이는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 치료되어야 한다	윤리/병리 프레임

6) 엘리트 미디어로서의 신문

이상과 같이 신문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특정한 담론을 통해 해당 미디어의 역할을 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담론 생산에 대한 기본 전제로 돌아가서 대립항에 존재하는 올드미디어로서의 신문에 대한 담론은 어떤 형식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앞서 설정한 텔레비전과 인터넷 매체의 분석 시기 (1969년, 1992년, 1995년, 2000년) 내에서의 신문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인쇄 신문에 대한 분석으로 인터넷 신문 관련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신문 스스로에 대한 보도 경향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담론은 첫째, ‘시대적, 교육적 선구자로서의 신문의 역할론’이었고, 둘째, ‘뉴미디어의 등장에도 신문은 건재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자위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여타 매체와 비교했을 때 신문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며, 신문의 엘리트적 의식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로 해석된다.

신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전쟁을 포함한 대소의 사건과 문제들을 알리며, 여론을 일으키고 이끌며, 선자에게 오락과 교양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비상한 수단으로 매우 특수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1969. 9. 22. “세계의 신문들은 어떻게 대처했나”)

아무리 전자통신수단 경쟁이 심하더라도 신문은 독자와 함께 뉴스를 생각하는 매체채로 남을 것이다. (<중앙일보> 1969. 9. 22. “미래의 신문”)

외모 등 이미지보다는 후보의 공약이나 정견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은 약 광고나 화장품 광고처럼 알맹이는 없는 TV 정치 광고에 의지하지 않고 신문을 읽어 가며 판단력을 기른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2. 11. 29. “미 대선, TV광고가 희비 갈랐다”)

〈표 8〉 신문 관련 담론 및 보도 프레임

시기	수사적 어휘	형성 담론	프레임
텔레비전 도입기 (1969)	신문의 자주는 역사의 창조 /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붓대 / 신념 살려 사실대로 보도	신념 있는 매체로서의 신문	엘리트 프레임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선 TV가 신문을 대신할 수도 / 어떤 사건을 생각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신문을 통해서만이 가장 잘될 수 있으며	신문의 다른 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	
텔레비전 성숙기 (1992)	정론직필 / 불편부당 / 소신과 신념 / 비리를 고발하고 여론을 이끌어감에 있어 신문이 할 일이 적지 않다 /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햇불 노릇 / 금전만능의 가치풍토를 극복함에 있어 언론, 특히 신문이 선봉장의 구실을 해야	신문의 사회적 역할	엘리트 프레임
인터넷 도입기 (1995)	전통적인 고유한 신문은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 / 신문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은 계속 살아남으리라고 확신 / 신문은 정보산업의 핵심이며 모름지기 역사가 기록되는 공간 / 정보전달에 머무는 다른 매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사고의 젖줄인 신문 / 신문이란 여러 개의 진리를 제공 / 세계를 읽는 신문	신문의 언론매체로 서의 정통성	엘리트 프레임
	사고력 키우는 훌륭한 교재 / 교육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노다지 / 독서, 표현력 살아있는 교과서 / 사회를 배우는 교과서 / 신문 없는 수업 상상못해 / 신문이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의 샘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학생들 사고의 폭과 깊이가 눈에 띄게 달라져 /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 / 총체적, 깊이있는 사고 배양 / 어휘력 향상때 독서에 도움	신문의 교육적 매체로서의 가치	
인터넷 성숙기 (2000)	신문은 촛불 / 신문 없는 삶은 암흑같은 것 / TV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까지 파헤침 / 공공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계재하지 않음 / 정통성을 지녔기 때문 / 평판을 쌓아놓고 있음 /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종이신문에 실리는 정보를 편하게 생각하고 훨씬 신뢰함	정통성과 신뢰성을 가진 신문의 가치	엘리트 프레임
	점점 험난해지는 정보의 바다를 늠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 미래세대를 기르는데 미더운 등대역할 / 신문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생생한 교재 / 신문은 꿀맛 같은 글맛을 일깨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교재 /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생생한 지식이 가득	신문의 교육적 매체로서의 가치	

신문은 단순히 종이기가 아니다. 정보산업의 핵심이며 모름지기 역사가 기록되는 공간이다. 독자에게 기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판별해낼 수 있는 해안과 통찰력,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정보전달에 머무는 다른 매체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문은 앞으로도 정보산업의 얼굴로 남을 것이다. (<조선일보> 1995. 3. 5. “미래의 신문 예측”)

신문 관련 보도의 특징 중 하나는 기사의 편집, 배치 형태였다. 신문의 효용성과 매체로서의 장점에 대한 상당수 기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보도와 연계되어 생산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뉴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해당 뉴미디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중대한 매체 개발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문의 위기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건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보도 행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문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엘리트 프레임’으로 명명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신문으로 대표되는 올드미디어의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뉴미디어에 대한 재현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신문 기사들을 분석하여 해당 미디어를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특정한 담론 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올드미디어가 뉴미디어를 재현하는 특정한 프레임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올드미디어로서의 신문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보도하는 데 있어 특정한 보도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문은 새로 등장한 매체에 대해 교육적·공익적 역할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기반하는 담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텔레비전의 경우 도입기부터 교육적 역할에 국한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오락이나 드라마 등에 대해 윤리 프레임을 이용하여 '저질/비교육적', '선정적' 등과 같은 담론을 생산하였다. 또한 이러한 담론의 내용은 텔레비전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사건보다는,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한 논리로 구성된다. 한편 성숙기에 접어들면 현실과 결부시켜 보다 확대 담론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텔레비전의 교육적 역할 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에도 주목하며 텔레비전을 저속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결여된 매체로 재현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달리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도입기에 다수의 긍정적 담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교육적 도구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가능성과 인터넷이 가져다 줄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당시 김영삼 정부가 강조했던 '세계화'라는 이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은 도입기 인터넷 가상공간에 국한되었던 것이 성숙기에는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도입기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은 인터넷의 나쁜 속성으로 인해 앞으로 초래될 결과를 전망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는 텔레비전에서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실보다는 가설 기반의 논리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성숙기에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실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보도들이 증가하는데, 상당수의 기사들은 인터넷이 병리적 증상을 일으켜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담론을 제시한다. 인터넷은 텔레비전과 비교했을 때 병리적인 비정상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텔레비전의 경우 '상업적', '비교육적', '선정적' 등의 차원에서 비윤리성이 지적되었던 반면, 인터넷은 '중독', '정신 이상', '사회 부적응' 등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병리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체의 비윤리성이 지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각기 상이한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었다.

둘째, 신문이 뉴미디어를 타 국가와의 경쟁 도구로 담론화하는 가운데, 그 보도 경향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텔레비전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배워야 함은 강

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외국의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경우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며 종이신문을 보완한다는 긍정성은 확대 담론화되는 반면, 민주적 공론의 장이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대안적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기능에 관한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인터넷 도입기에는 신문이 대국민 인터넷 전도사를 자청할 만큼 인터넷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담론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이 소개될 당시 신문사 자체적으로 신문매체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사의 신문을 광고하는 한편, 별도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창출의 도구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신문은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뉴미디어를 선진국과의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는 반면, 뉴미디어의 문화적/매체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축소 담론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신문은 뉴미디어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의 관심과 대화’와 ‘인쇄 매체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의 뉴미디어 이용에 대해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담론은 단순히 보수적 신문의 가족 이데올로기 확립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신문매체가 뉴미디어를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전유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텔레비전과 인터넷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담론이 아니라 만화, 게임, 모바일 미디어 등 다른 형태의 매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신문은 뉴미디어를 비윤리적이고 수준 낮은 매체로 재현하는 반면 신문 스스로를 담론적 대립항에 위치시킴으로써 매우 엘리트적이며 사회를 선도하는 정통적인 미디어로 재현하고 있다. 뉴미디어가 행하지 못하는 교육적, 사회 선도적 역할을 신문은 잘 소화해내고 있으며, 우매한 민중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신문이고, 이러한 신문의 위상은 타 매체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해당 기사들의 요지이다. 신문 기사의 편집에 있어 신문의 엘리트적 프레임에 입각한 기사가 뉴미디어와

관련된 부정적 내용의 기사와 연계되어 일종의 대립항의 구도로 재현되는 것도 뉴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신문에 대한 긍정적 담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문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입장에서 타 미디어에 대한 사실 및 그에 기반한 기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선점 매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뉴미디어의 상대적 취약성을 강조하고 그 대립항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주류 매체로서의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신문 매체는 뉴미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기보다 미디어 시장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권력 기제로서의 역할에 치중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문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재현하는 특정한 프레임을 확인했다. 우선 텔레비전에 대한 보도의 경우 '윤리 프레임'과 '비교 프레임'을 통해 대부분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도입기와 성숙기 간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관련 보도의 경우는 '발전 프레임', '비교 프레임', '병리 프레임'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도입기에는 '발전 프레임'을 통해 긍정적 담론이, '비교 프레임'과 '병리 프레임'을 통해서는 부정적 담론이 생산된 반면, 성숙기에는 '비교 프레임'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 기사가 생산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텔레비전 관련 기사에서의 '윤리 프레임'과 인터넷 기사에서의 '병리 프레임'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매체를 강한 중독성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병리적 현상인 것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신문 스스로를 재현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엘리트 프레임'에 기반한 것으로 엘리트적 매체로서의 신문의 역할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한 결과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도입기부터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반면, 인터넷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과 인터넷이 동일한 텍스트 기반의 매체라는 점과 신문의 해당 매체 소유 여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텔레비전은 영상 이미지와 음성을 통해 재현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문과 상이한 매체인

반면, 인터넷은 문자 기반의 매체라는 점에서 활자 매체의 확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실제로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국내 신문사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사업 분야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아시아 최초의 인터넷 신문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고 있고, 〈조선일보〉 역시 조선닷컴(www.chosun.com)을 독립적인 계열사로 관리 할 만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신문이 종이 신문 시장을 위협하고 인터넷 보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기존 신문사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결국 신문이 자신들의 손익/경쟁 여부에 따라 타 매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고, IPTV나 모바일 TV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21세기에도 인쇄 신문은 여전히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담론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새롭게 등장하는 뉴 미디어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 위주의 기사를 제공하기보다 뉴 미디어를 특정한 담론으로 프레임하고, 부정적 속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신문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항 대립적 위치에서 우월한 미디어임을 확인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권력의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칫 새롭게 등장할 뉴미디어 역시 ‘편리하지만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비교육적이며 비윤리적인 매체’로 각인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올드미디어인 신문이 뉴미디어인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정 담론을 생산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올드 미디어의 뉴미디어에 대한 재현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간 권력관계의 일부 단면만을 분석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일종의 대항 전략으로써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올드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이 수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고, 보다 섬세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미은(2000). 인터넷과 기존 매체 이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0년 여름호, 179~208쪽.
- 권혁남·나은영·마동훈·박천일·심재철(1998). 뉴미디어와 일상생활. 《한국방송학보》 10호, 53~113쪽.
- 김관규·김무곤(2005). 수용자 전보 수용에 있어서의 인쇄 신문 뉴스와 인터넷신문 뉴스의 차이. 《한국방송학보》 19권 2호, 164~199쪽.
- 김선남(2002). 매매출 관련 TV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쪽.
- 김성해·강희민·이진희(2007).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담론. 《언론과 사회》 15권 4호, 39~85쪽.
- 김세은·김수아(2007). 저널리즘과 여성의 이중 재현: 여성유권자 보도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226~255쪽.
- 김수정·조은희(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09~139쪽.
- 김원용·이동훈(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쪽.
- 김훈순(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 담론. 《방송연구》 1998년 여름호, 138~165쪽.
- 남재일(2004). 《이라크 전쟁 보도의 프레임과 담론》 한국언론재단.
- 백선기(2006). 인터넷 미디어의 “미국·이라크” 전쟁 보도 경향과 담론구조: <오마이뉴스> 보도의 시간구조와 담론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3권, 115~170쪽.
- 백선기·김남일(2008). TV뉴스의 특정지역 담론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KBS-TV 서울 ‘강남권역’ 보도의 담론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125~150쪽.
- 송용희(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29~251쪽.

- 양승목(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17호, 6~40쪽.
- 유선영(2004). 《미디어의 '세대차이' 담론》 한국언론재단.
- 이기형(2006). 담론 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쪽.
- 이종수(2004). 《TV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뉴스, 리얼리티 쇼의 현실구성》 한나래.
- 이준웅(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권, 85~153쪽.
- 임종수(2004). 1960~19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79~107쪽.
- _____(2008). 1970년대 텔레비전, 문화와 비문화의 양가성. 《언론과 사회》 16권 1호, 49~85쪽.
- 임태섭(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 분석 연구. 《언론과 사회》 1권, 67~109쪽.
- 정재민·이화진·김영주(2005). 미디어 간 경쟁과 대체: 지상파방송, 케이블/위성방송, 인터넷의 적소분석.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523~564쪽.
- 정재철(2001). 미국 대 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3권, 257~278쪽.
- 최선규·이한영(2005). 인터넷 도입 이후 10년: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6호, 163~201쪽.
- 황인성(2004). 텔레비전의 미·이라크 전쟁 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44~167쪽.
- Bell, A.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Blackwell.
- Bell, A. and Garrett, P.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Oxford: Blackwell.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s research. In B. Berelson and M. Janowitz (Eds.). (1966).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pp. 260~266). New York: The Free Press.
- Briggs, A. and Burke, P. (2005). *A Social history of the media*. Cambridge: Polity Press.
- Chun, W. and Keenan, T. (2006). *New media, old media: A history and theory reader*. London: Routledge.
- Derrida, J. (1981). *Posi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zard, W. (2000). *Old media, new media*. New York: Longman.

- Dewsbury, S. (1999). *The sensation novel*. Farmington Hills: The Gale Group.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Fairclough, N. (1995a). *Media discourse*. 이원표(역). (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_____(1995b).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_____(2003). *Analyz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Ferguson, D. & Perse, E. (2000). The World Wide Web as a functional alternative to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2), 155~174.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mson, W. A. & Lasch, K. E. (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 Shimon(Ed.).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pp. 398~415). NY: Academic Press.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ety*, 95,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S. (1997).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S.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pp. 13~64). London: Sage.
- Hartley, J. (1982). *Understanding news*. New York: Methuen & Co.
- Iyenge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Lippmann, W. (1997).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 Phillips, L. & Jorgensen, M. (2002). *Discourse analysis as theory and*

method. London: Sage.

Richardson, J. (2007). *Analysing newspapers*. Hampshire: Macmillan.

Schmidt, S. (2007). *Histories and discourses: Rewriting constructivism*. Exeter: Imprint Academic.

van Dijk, T. (1985). Discourse analysis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van Dijk, T (Ed.). *Discourse and Communication* (pp. 1~12), New York: Walter de Gruyter.

_____(1998). Opinions and ideologies in the press. In A. Bell. & P. Garrett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pp. 21~63). London: Blackwell.

A Study on discourse of new media represented by old media Focusing on newspaper articles about TV and Internet

Jae-won JOO · Bora NA

Advent of new media influences on the status of existing media. When new media enters into the existing field of media, a power struggle for leading position erupts among media. During this struggle, old media makes use of its leading position in discourse producing to fix new media in a specific frame. This research analyzed newspaper articles on new media, which are television and internet, to see how this struggle goes and the mechanism of power works on the basis of the stage of media life cycle.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newspaper tended to judge how well the new media performs its educational and public duty as a popular media and then decide the way of indicating new media, positive or negative. According to discourse regarding new media in newspaper, television was indicated as a medium that is 'low' and 'lack of publicness'. A few of positive discourses were found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internet, but when it comes to maturity stage, internet began to be indicated as 'lascivious' and 'addictive' medium that needed treatment to be cured which eventually defined the medium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Second, newspaper produced certain discourses that define new media as a 'mean to compete against other countries'. Also newspaper took contradictory attitude since it admitted that new media brought advanced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 for competition against other countries and that is good, but on the other hand, it consistently maintained negative view on foreign cultures that inevitably flowed into the country. Third, to solve the socio-cultural problems caused by new media, newspaper suggested to make use of 'conversation with family' and 'reading print media'. This is not just about the conservative attitude of newspapers which had been spreading the value of traditional family, but also shows that newspaper regards new media as teenagers' sole property who are not fully matured. Lastly, while newspaper has defined television and internet as mass media or populist media all along, it placed itself in the opposite side of new media defying itself as 'elite' and 'authentic' medium that leads the society in right way.

- (1) 최초 투고: 2009. 1. 2.
- (2) 최종 수정본 입고: 2009. 4. 20.
- (3) 최종 게재 결정: 2009. 5. 9.
- (4) 참고문헌 수: 52개